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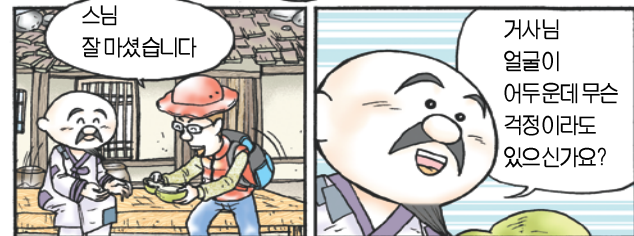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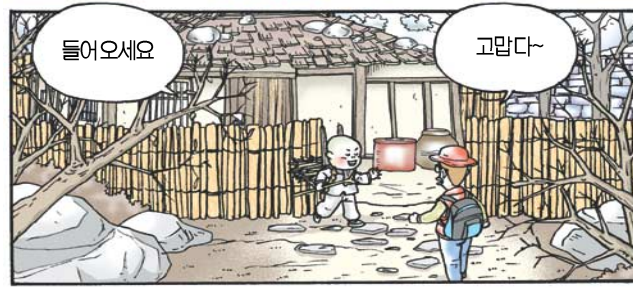
이함경



“근심걱정으로 얼굴이 어둡다”

<출전 : 삼우따 니까야 I-4>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이렇게 들었다

명절의 부부

서로 힘 되어주는 인·연 이어야

명절이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다가도 명절 전후만 되면 다투는 부부들을 선제는 흔히 본다. 싸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명절이란 남편들만의 잔치이고 아내들은 그저 잔치 뒷바라지에 등골이 찢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변해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마 이번 설에도 이러한 명절 후유증으로 다투는 부부가 제법 많으리라. 선제가 보기에 이것은 '자기 자리'만을 고집하기 때문인 것 같다. 유독 명절 때면 두드러지는 '남자의 자리'와 '여자의 자리'. 하지만 자리라는 것이 어디 고정된 것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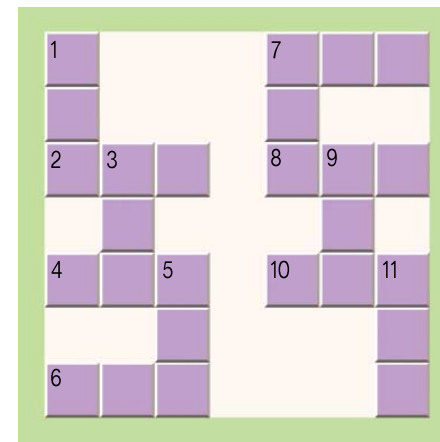
부부는 인연이라고도 한다. 화염에서는 세상의 인과가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설명하면서 '인(因)'에 결과를 만들어낼 힘이 있느냐, 없느냐 등에 따라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인을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인에 힘이 있고 '연(緣)'을 기다리지 않는 경우, 인에 힘이 없지만 연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인에 힘이 없으며 연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로 설명하는 것이다. 인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세계의 사람 관계를 탁월하게 설명했다고 선제는 생각한다. 사실 말로는 인이니 연이니 구별하지 않고 인과 연은 서로가 서로에게 인이 되고 연이 된다.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연의 도움을 받아 결과를 만들어낸다.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쪽으로 나의 힘을 끌어준다. 인과 연을 나눌 수 없을 만큼 긴밀한 인연 관계, 아예 부부 사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과연 명절에 남편들은 어떤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일까?

한쪽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방바닥에 등 대고 누워있는 것은 '지아비'의 특권이리라보다는 '겉은 머리 파 뿌리' 약속을 순식간에 날려 버리며 인연을 끊겠다는 선언과 다를 것이 없다.

명절이 다 끝나고 나서야 수고했다며 몸져누운 아내의 팔 다리를 주무르기 보다는 미리미리 힘을 보태주어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인연으로 만난 부부의 할 일이 아닐까?

■ 최원섭 (성철선사상연구회 연합회)



교리퍼즐

가로

2. 연각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탈출.
- 해탈문, 천왕문을 지나 불의 경지를 상징하는 전각.
- 오계가운데 '살생'을 하지 말라'는 계.
- 새벽예불전에 목탁을 치며 행하는 의식.
- 경복 안동산 포.
- 산업, 문화 등 기타 방면에 있어서 뒤떨어진 상태에서 벗어난 진보된 상태로 되게 함.

< 406호 「교리퍼즐」 정답 >



세로

- 부처님 십대제자중 논의제일.
- '장타령 군'을 낮게 부르는 말.
- 문화에서 배우는 제자.
- 유식화파에서 아뢰야식을 지칭하는 말.
- 조계종 종립대학. 서울 남산 중턱에 위치하고 2006년이면 개교 100주년을 맞는다.
- 시주들을 얻어 절의 양식을 대는 스님.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꽃빛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 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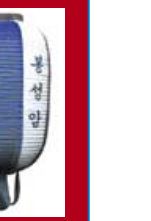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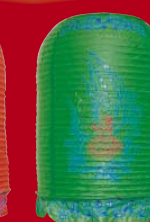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보관상태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